

아라키토료

ARAKITORYO

2019

100th
Anniversary
TENRIKYO
SEINENKAI



아라키토료 지침

하나,
우리 튼튼한 목수장들은
구제한줄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세계 구제의 선도자가 되자.

하나,
우리 튼튼한 목수장들은
스스로 터전에 이바지하며,
아버이의 숨결을 느끼자.

하나,
우리 튼튼한 목수장들은
언제나 모본을 주시하며,
교조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내자.

창립100주년 기념 제94회 천리교청년회 총회
(입교181년 10월 28일)



청년회장님 말씀

행사의 모습



- 차 례 -

창립100주년 기념 제94회 천리교청년회 총회

청년회장님 말씀..... 2

표 통 령 축 사..... 15

결 의 표 명..... 21

창립100주년 기념 제94회 천리교청년회 총회
(입교181년 10월28일 10시/ 본부 안들)

청년회장님 말씀

청년회장 나카야마 다이스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터전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이 길을 위해, 그리고 청년회 활동을 위해, 열심히 힘써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천리교청년회는 창립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청년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성대하게 창립100주년 기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입니다.

먼저, 이렇게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도, 역대 진주님을 비롯하여, 과거 100년간, 청년회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의 덕분입니다. 이 장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0주년 활동이 시작된 2년 전 오늘, 저는 인사말씀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100주년이 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로부터 2년, 사실 저의 인생도 크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터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산하 교회도 없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가족들과

교회에 입주해 계시는 분, 신자 분들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터전의 학교, 대학은 오사카의 간사이대학으로 진학하였고, 졸업 후 바로 나카야마 가문에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양자라는 입장에 좀처럼 친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그 날부터, 주위에 계신 분들 모두가 갑자기 경어로 말씀해 주시고, 이름 뒤에도 꼭 님이란 존칭을 붙여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22살. 주위의 분들은 모두 저보다 연세가 높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신경을 써 주시고, 저 또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던 것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의 생활은 아주 변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즐겁지 못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작된 것이, 청년회 100주년 활동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제 자신은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을까,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을까 하는 데 대해 되돌아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조님 130년제의 연제활동 중에는, 미신자 분들에게 「즐거운 삶의 천리교입니다。」라고 수 백 번, 수 천 번도 더 말해 왔으나, 제 자신이 나날의 생활 가운데서 즐거운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서 즐거움의 향기가 배어나오지 않는데, 입으로만 즐거운 삶을 아무리 말해 본들, 사람들에게 전해질 리 없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날의 즐거운 삶을 실천해야겠다고 의식

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 입장이나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휴대전화에 메모하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난 뒤 식기를 들고 주방으로 가서 「잘 먹었습니다.」 까지는 말하게 되었습니다만, 「맛있었습니다.」 라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로부터는 매일 「맛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남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만 눈에 띄어, 그때마다 주의를 주거나, 불평이나 험담을 하곤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남들이 잘하는 일에 시선을 돌려 그것을 칭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직접 칭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없는 곳, 즉 뒤에서 칭찬하는 것도 실천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실천해 왔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결코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이나 행동을 조금 바꾸거나, 보탠 것뿐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데에 마음을 두고 실천했던 결과,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그 만큼 기쁨이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 할수록 매일 매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100주년 활동으로 내걸은, 나날의 즐거운 삶의 실천에 의해, 결국 제 자신이 구제받게 된 것입니다. 남을 구제하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 사이에, 어느 샌가 제 자신이 구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악가에서

고생을 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자신을 원망해야 할 것이니라 (신약가 10장-7)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힘든 생각이 드는 것은 모두가 마음에
서라고, 그래서 모든 원인은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100주년 활동이 시작
되기 전에는, 제 자신이 힘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입
장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살표가 상대방
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서에서

정성 하나가 하늘의 리, 하늘의 리라면 당장 받아들이고
당장 돌려주는 것이 하나의 리. 단단히 분간해 들어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남을 구제하고 싶
다, 남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족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
꾸는 것을 말합니다. 정성의 마음으로, 정성스런 말을 사용
하여, 정성스런 행동만 하면서 지낸다면, 그것을 신님께서
바로 받아들여 주시고, 바로 되돌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들의 진실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써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신의 대물이야
무엇으로 알고 쓰고 있는가 (3-41)

라고 가르쳐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몸은 신님께서 빌려 주신 것이며, 우리들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게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나날이 크나큰 수호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신님께 은혜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신님께서 가장 기뻐해 주시는 것은, 남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즉 정성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자신만 좋으면 된다, 지금만 좋다면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남을 구제해야겠다, 기쁘게 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아버지신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갈 수 있게 수호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입장이나 환경,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 쪽으로 화살표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말과 행동을 진심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마음이 바뀌고, 인생 또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 서로가 항상 언제라도, 정성의 마음으로 지내고,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이제부터라도 나날이 즐거운 삶의 실천에 힘쓰도록 합시다.

이 100주년은 「백지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은 결승점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스타트를 끊는 것에 해당되며, 이제부터 우리들은 튼튼한 목수장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요점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자주성입니다. 천리교청년회는 1918년 10월 25일에 창립되었습니다. 그 창립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년회의 역사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행동이념이야말로, 튼튼한 목수장입니다. 튼튼한 목수장이란, 신약가에,

첩첩산 깊은곳에 갈것이며는

튼튼한 목수장을 데리고가라

(신약가 12장-8)

라고 일러주시는 것처럼, 이 길의 외부를 향해 생각하면,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험한 숲속을 헤치고 나아가듯이, 아직 교조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 이 길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를 말하며, 또 이 길의 내부를 향해 생각하면, 자진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깊이 탐구하는 구도자를 의미합니다. 청년회 창립의 원동력이 된 것은, 당시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길을 더욱 넓은 세계로 넓히고 전하겠다고 하는 열의와, 이 길을 깊이 탐구하여 성인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즉, 그 당시 청년들의 자주적인 움직임이 바로 청년회 창립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다시 한 번 청년회의 으뜸하루로 되돌아가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인구는 감소하여, 이제부터 점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지금 어떤 직업은, 단순작업부터 약 절반이 순서대로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된다고 합니다. 5G라는 차세대의 통신 회선이 등장함으로써 통신 속도가 월등히 빨라지고,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 교조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구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회 안에서도 미신자 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 나누기 모임」 이나, 그 외에도 새로운 전도 방법을 자주적인 활동으로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전도 방법도 있습니다. 원전과 교조님의 모본을 깊이 공부하여,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맞추어 연구하며 실천하는, 즉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활동이 반드시 교회의 힘이 되어, 이윽고 즐거운 삶의 세계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이제부터 청년회로서도 여러가지 전도구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즐겁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작년에 개최된 후계자강습회의 설문조사에서, 「신앙 몇 대째입니까?」란 질문에 대해, 「4대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3대째까지는 초대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초대의 구제 받은 이야기를 아이에게 자세하고 깊게 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이 자연스레 전해진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대째 이후가 되면, 초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얼마만큼 나날을 즐기고, 또 얼마만큼 그러한 모습을 주위에 비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화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스이 기쿠는 매일같이 집터에 다녔는데, 때로는 아무래도 돌아갈 수 없는 날도 있었다. 그런 때는 종일 간을 한 음식 안 먹기, 또는 익힌 것 안 먹기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던 다음날 집터에 가니, 교조님께서서는 「기쿠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아버이는 귀여운 자녀를 조금도 괴롭힐 생각은 없는 거야. 이 신은 귀여운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아야만 신도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다. 것처럼 교조님께서서는 무엇이든 환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고본천리교교조전일화편』 161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을」)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이 즐거워서 가슴 설레며 생활하시고 계십니까? 교조님께서서는 「힘내라!」 라고 하시지 않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

다.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이 즐겁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사람이 가장 기쁨을 느끼는 것은, 남들이 기뻐해 주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을 활용하여, 교조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구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참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잘하는 것을 활용해 나가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용하여 전도구제를 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행동하며, 「어쨌든 신앙은 즐거운 것이다.」 라는 모습을 여기에 있는 우리들부터 주위에 전해 나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세계 구제입니다. 2주 정도 전, 「저는 무엇을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관계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초반에는,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열주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서두에서 이야기한 제 자신이 구제받은 이야기를 그에게 했습니다. 제 마음의 화살표가 밖으로 향해, 남의 탓으로 돌렸다는 것, 입장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렸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려는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바꾸었더니 마음이 크게 변했다는 것 등등. 그는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 주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

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돌아갈 때는 몰라볼 정도로 밝은 표정이 되어 매우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100주년 활동이 시작되고 나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횟수를 정한 다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제와 이어지지 않았고, 전도만을 위한 전도가 되어, 어느 샌가 수단이어야 할 전도가,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삶의 실천에 의해 마음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더욱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실제로 느꼈던 기쁨을 전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전도를 하는 것이 진심으로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즐기면서 하고 계십니까? 나날의 즐거운 삶을 실천함으로써 넘쳐흐르는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며, 즐기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100주년 활동으로써 제가 실천해 온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지금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도말씀에서

한 사람 도우면 만 사람 도움 받는다는 마음을 가져 다오.

(1904. 12. 14)

라고 깨우쳐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부모

님과 처, 자녀를 비롯하여 직장이나 평소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손을 내밀어 고민을 들어 주면서, 그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구제를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구제받음으로써 반드시 만인의 구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에 있는 우리들 튼튼한 목수장이 세계 구제를 향해, 한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아직 미숙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미숙하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계속 도전을 반복하면서 얼마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제35회 청년회총회 석상에서 2대 진주님께서는,

「그럼 여기서, 튼튼한 목수장으로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황무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그 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 생각하게 된 것은, 그 황무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에만 한하지 않고, 달세계에까지 늘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세계에까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달세계에 인간이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사는 지구상에서 세계가 대충 다스러지

는 길이 갖추어진 다음에 튼튼한 목수장이 나아갈 곳은 신천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세계로 나아갈 기력과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점을 단단히 깨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75년 지나면, 제일 먼저 튼튼한 목수장은 이 지구상에서는 필요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좋아,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 천리교달대교회라는 명칭을 받아야지!’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자신의 마음이 아직도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큰 마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최근 조조(ZOZO)란 회사의 마에자와 사장이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 달에 가겠다고 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약 60년도 더 이전에,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한 10년도 더 이전에, 2대 진주님의 시선은 이미 지구를 떠나 달까지 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부터 그 정도의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큰 꿈을 갖는, 그야말로 대망의 길인 것입니다.

과거 100년간, 선인선배 선생님들께서 겹겹이 쌓아 놓으신 고귀한 발자취 위에 서서, 선배 선생님들께서 도달하지 못했던 길을 향해, 발걸음을 크게 디디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선배 선생님들에 대한 은혜보답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중의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교조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활용하여, 온 세계에서 활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맞추어, 앞으로의 이 길이 더욱 마음 설레는 길이 되었으면, 그리고 더욱 즐거운 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자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천리교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결집되면, 반드시 엄청난 힘이 되어, 단숨에 빛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이 날부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자신의 성장을 바라면서 더욱 더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매일 살아가게 해 주시는 기쁨을 음미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고 싶다고 하는 정성의 마음으로, 즐거운 삶의 모습을 온 세계에 비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기념해야 할 이 날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하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100주년기념
제94회 천리교청년회 총회

표통령 축사

표통령 나카타 겐스케

오늘은, 청천한 가을 날씨를 수호 받은 가운데, 그리고 이처럼 많은 청년회원 여러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를 성대히 개최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도 훌륭한 총회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제 입장에서 한마디 축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청년회가 1918년에 창립된 이래 올해로 10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100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연한이 흐르는 동안에는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 시대에 필요로 했던 청년회 활동을 진행해 온, 튼튼한 목수장을 자부하는 수많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은 너무나 방대하여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금 다시 한 번 깊이 경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활동 중인 수많은 튼튼한 목수장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기까지는, 100년을 이끌어 주신 교조님의 두터운 어버이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총회에서 진주님께서서는 복원의 정신에 대해 말씀하

셨습니다. 작년에 말씀 하셨다는 것은, 1년 후인 오늘, 10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침의 근본으로 되돌아가, 그 근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교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까지의 오랜 기간, 일본정부의 체제 하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조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없었으며, 근행도 가르쳐 주신 대로 올릴 수 없는 시대가 그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전을 계기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을 하고, 당당하게 근행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2대 진주님께서서는 복원을 제창하시고, 가르침의 근본으로 되돌아가, 그 근본을 깊이 추구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혼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복원이란, 나라의 체제 등에 의해 왜곡 되었던 부분을 본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교조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근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용솟음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나아간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순수하게 즐거운 삶을 향한 구제한줄기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항상 이 복원의 정신을 계속해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시대의 흐름이나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 버리기 쉬운 인간의 약한 부분이 있지만, 튼튼한 목수장을 자부하는 청년회원 여러분들은, 이 약한 부분을 복원의 정신으로 잘 다루어서, 가르침을 선행시키는 사고방식을 어떻게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현재의 청년회는, 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 시순을 ‘백지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순’이라 받아들이고, 창립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튼튼한 목수장으로서 한마음으로 포교와 구도에 힘쓰고, 일약 성인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그 취지를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즉 그것은, 「일백 백(百)」자라는 한자를 「흰 백(白)」자라는 한자로 대용하여 「백지(白紙)로 되돌아가 처음(一)부터 시작한다」고 해석하고,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청년회 창립의 으뜸하루로 되돌아가, 즉 교조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모본의 길로 되돌아가, 100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튼튼한 목수장의 길을 그리며 나아가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님께서서는 작년 총회에서, 그것을 복원의 정신과 겹쳐서 감히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청년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을 목표로 기간을 정해 100주년 활동을 추진해 오셨겠지만, 또 한 편으로 보면, 지금부터 새로이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지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청년회 활동으로서 단단히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회의 충실한 활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청년회 활동은, 지금까지의 100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100

년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할 튼튼한 목수장의 활동일 것입니다. 튼튼한 목수장의 활동에 있어서 그 하나는, 세계 구석 구석에 이르기까지 신명을 전하는 실천이며, 또 하나는, 젊은 여러분들이므로, 언제나 구도의 정신을 마음에 두고 성인을 향한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은 자유롭고 당당하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바로 70년 정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게 꿈만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용재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괴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도말씀에,

좁은 길은 걷기 쉽다, 한길은 걷기 어렵다. 이 리를 잘 분간하여 깨달아라. 깨달으면 알게 된다. 한길은 걷기 어렵다, 좁은 길은 걷기 쉽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생각하겠지. 자아, 조심해서 걷기 때문에 좁은 길은 다니기 쉽다, (이하 생략) (1889. 11. 1)

라고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한길을 꿈으로만 생각하던 좁은 길의 시대에는, 삼엄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며 필사적으로 모색하면서, 이를 악물고,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다고, 언젠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원하며, 우리들의 선배님들은 그것을 힘으로 삼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은 한길, 즉 자유롭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

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어려운 장면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버이신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충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신앙이 필요 없다, 언젠가 곤란한 일이 생겨 꼭 필요하게 되면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보통의 생활이야말로, 어버이신님의 수호 덕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호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보답의 길을 걷는데 대한 중요성을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감사와 도전」이라고, 큰 글씨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나날이 당연하게 지내는 데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목수장의 미래의 활동, 장래의 활동이 밝게 펼쳐지고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원의 정신은 즐거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정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응해야 할 활동은 많이 필요합니다. 일본어 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걸맞은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의 시대에 따라 으뜸인 신·진실한 신이신 어버이신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게 되어서는, 나타날 수호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길은 즐거운 삶을 실천하는 구제한줄기의 길입니다. 이 근본 위에 단단히

버티고 서서, 청년회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부터 할 수 있는 즐거운 삶을 실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뭇을 잘 확인하면서 세계 구제를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 구제를 부르짖는 청년이라면, 먼저 자기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부터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부디, 앞서 말씀해 주신 청년회장님의 인사말씀의 내용을 가슴에 새겨, 지금부터라도 이 길의 선두에서는 튼튼한 목수장으로서 용솟음치며 활동해 주시기를, 청년회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이신님께서는,

용솟음치며 시작하면 신도 용솟음친다. 신이 용솟음치면 어디까지나 세계 용솟음치게 한다. (1907. 5. 30)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용솟음치는 활동이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그 용솟음치는 마음과 실천을 아버지신님께서 받아 주심으로써 보다 많은 수호를 받아, 온 세상의 형제들을 용솟음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오늘 기념총회에서의 축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대한 모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창립100주년기념
제94회 천리교청년회 총회

결 의 표 명

청년회본부 위원장 안도 요시토

오늘은 내빈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가운데, 「창립 100주년기념 제94회 천리교청년회 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저희 회원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천리교청년회가 1918년에 탄생된 이래 창립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발자취에 대해 여러 모로 생각할 때, 그 동안 어버이신님, 교조님의 인도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항상 따뜻한 어버이마음을 기울여 주신 역대 진주님, 그리고 대대로 신앙을 전해 주신 선배님들에 대한 100년간의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릅니다.

창립100년이라는 시순의 역할을 맡은 우리들은, 이 기념해야 될 시순을, 「백지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순」으로 정하고, 「마음을 움직여라 세계를 개척하자」를 슬로건으로 하여, 작년부터는 기본방침을 「감사와 도전」으로 내걸고, 튼튼한 목수장의 본분인 포교, 구도에도 새로운 시도를 가미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포교 면에서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는 포교」를 주제

로, 항상 구제를 의식하면서, 젊음의 기세에만 맡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조님의 가르침을 가슴에서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전하는 데에 마음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에는 「튼튼한 목수장 일제 전도의 날」로 정하여 포교활동을 정착화시키고, 작년 4월부터는 신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을 교회나 각 거점으로 안내하는 「첫 참배」를 목표로 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활동을 축으로 하여, 올해 6월에 실시한 「전 세계 일제 포교 월간」에는 국내외 모든 거점에서 「첫 참배로 구제의 연쇄현상을!»이란 구호 아래, 여태까지 없었던 새 활동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처럼 첫 참배자를 수호받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던 차에, 가까스로 참배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을 때의 그 감동, 그리고 첫 참배에서 구제로 이어졌을 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으며, 아버지신님, 교조님께서 따뜻하게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한 10월 25일에는, 첫 참배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까지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위치한 거점에 처음으로 6만 9천 9백 51명이 참배하게 된, 그야말로 청년회 창립 100주년에 어울리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도 면에서는 「나날이 즐거운 삶의 실천」을 주제로 제일 가까운 존재인 부모와 자녀,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가 사이 좋게」를 키워드로, 먼저 자기 자신이 바뀌고, 즐거운 삶의 실천에 마음을 기울임과 동시에,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로 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으며, 부부와 형제라는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각자의 나쁜 버릇이나 나쁜 성품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한 일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회원끼리 격려하거나, 마음의 변화를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신앙감화를 통해서도 몇 번이나 마음의 구제를 받게 되었고, 그때마다 한번 더 해보자고 용기를 얻은 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민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쓰러질 뻔했을 때,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 준 사람은 같은 목표를 가진 이 길의 교우들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마음이 꺾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교우들의 목소리 덕분에 오늘이란 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에,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실은 작년의 총회가 있는 후, 어느 청년회원이 「100주년을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생각을 전하는 데 대한 어려움, 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과 함께 감사와 도전을 가슴에 품고 걸었던 결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회원의 교회에는 많은 참배자가 찾아오게 되었고, 지금 그 회원도 100주년 활동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활동은 여기서 일단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의 발걸음은 세상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행동력은 물론, 방금 알려주신 청년회장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하여, 그리고 판단의 기준을 가르침으로부터 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회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새긴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 각자입니다. 미래로 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개척의 세계로 도전하는 튼튼한 목수장의 사명을 다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덕성을 살리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운 삶의 모습을 온 세계로 비취 나갈 것을 이에 맹세드리며, 회원대표의 결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해외 청년회 활동



하와이청년회 (5월 19일)



브라질청년회 (6월 9일)



아메리카청년회 (6월 16일)



콜롬비아청년회 (6월 16일)



멕시코청년회 (6월 30일)



타이완청년회 (9월 16일)



유럽청년회 (9월 8일)



한국청년회 (1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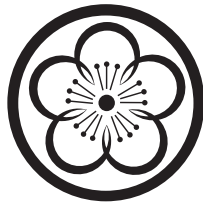




TENRIKYO
1918 SEINENKAI 2018

NIGHT **100** Fes フェス! STAGE
IN TENRI





© 2019 천리교 청년회 본부
Tenri, Nara, Japan